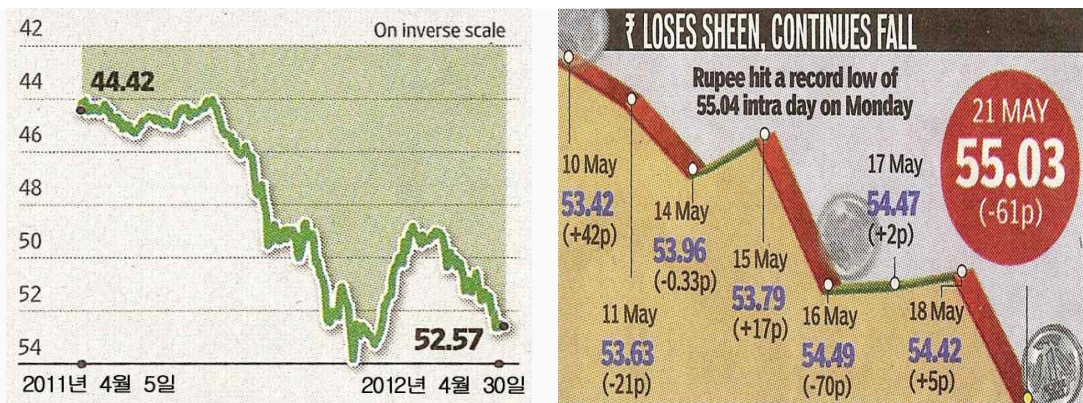


## 인도 루피화 가치 사상 최저 기록 전망

### □ 인도 루피화 가치 급락 추이

- 2011년 8월 달러당 44.08이었던 인도 루피화는 12월 15일 54.30 루피까지 떨어져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후 회복세를 보였으나, 올해 2월을 기점으로 다시 계속 절하돼 5월 들어서 연일 최저치를 갱신 중임.
- 2012년 5월 21일 달러당 55.03루피, 22일에는 장중 한때 55.47까지 떨어지다가 55.395로 마감함.

### 추락하는 인도 루피화 추이



자료원: Mint지 및 Hindustan times, 5월 22일자

- 금년 2월 이후 달러대비 루피화 가치는 10.24% 절하되었으며, 이는 BRICS 통화 중 브라질의 헤알화의 16.06%에 이은 두 번째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임.

## □ 인도 루피화 가치하락 이유

- 인도는 중국과 함께 지난 20년간 고도 경제성장을 거듭했으나, 2011년 중반부터 누적된 이상 징후가 감지되기 시작함
  - 기업인들은 지난 수년 사이에 높아지는 인도 내 반기업 정서에 우려를 표시하고 현 상황을 즐기는 듯한 정치권의 태도에도 불안감을 느낌.
  - 작년과 금년 초에 치루어진 주요 지방선거에서 집권 국민회의당의 참패, 2014년 총선을 의식한 집권연정의 불협화음으로 중요 정부정책 결정사항이 번복되거나 결정이 연기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.
  - 그리스발로 촉발된 유럽재정위기로 인도에 투자한 외국계은행과 포트폴리오 투자자들이 손실만회를 위해 자금이탈을 본격화함.
- 아울러, 최근의 루피화 가치하락은 인도기업들이 수년간의 경기 초호황으로 위기관리에 둔감해지고, 인도는 불패신화에 빠져 무리하게 공격적인 경영과 시설투자를 하다가 국내외 경기침체, 대출은행의 원리금과 채권 회수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기 시작함.
- 또한, 2012년 예산안에서 이전가격 가이드라인, 로열티에 대한 세금원천공제 소급징수, 자본소득에 대한 소급과세 및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(GAAR : General Anti-Avoidance Rule)을 도입한 것도 불안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짐.

## □ 시사점 및 전망

- 인도 루피화 환율이 치솟음에 따라 해외에서 원재료를 구입하여 가공하는 제조업들은 제품가격을 올릴 것으로 내다보이며, 특히 국제 원유가격의 인상으로 수입액이 증가해 경상적자가 심화될 것으로 보임.
- 2012년 4월 27일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amp;푸어스(S&P)가 인도의 등급 전망을 '부정적'으로 강등하자 이는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자들의 자본금 회수를 부추겨 루피화 약세에 속도를 붙인 것으로 평가됨.
- 최근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인도 국내은행, 인프라 기업, 기간산업 주력기업들의 신용평가등급을 하향조정 중임.
- 인도중앙은행(RBI)은 루피화 가치 급락세를 늦추기 위해 한정적 범위내에서 시장개입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, 5월 들어 루피화 급락으로 인도 경제 내 불안감이 고조되자 최근 긴급 재정정책 발표 등 일주일 사이에 세 번이나 중요한 대책을 발표함.
- 루피화 가치의 급락은 인도에서 영업중인 한국기업들의 달러화 표시 영업이익을 감소시켜 경영부담으로 작용하며, 원자재와 부품수입비중이 높은 자동차, 가전, 휴대폰 사업부문의 이익에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이고 자동차부품 산업분야 등은 인도 내 현지 소싱이 늘어날 전망이다.

【뉴텔리사무소 제공】